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상의 흔적에 대한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황주희

# 일상의 흔적에 대한 회화 표현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황주희

# 인 준 서

황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7년 석사학위 청구전 전시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일상의 흔적을 통해 본 현상을 주관적 감상으로 표현한 작품에 대한 연구이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더 새롭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것들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있다. 이런 현상들은 작업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작품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완성된다.

본 연구자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현상, 사건, 기록 등의 흔적을 통해 내재된 시간의 가치를 되짚어 본다. 다시 말해 지난 흔적들에 대한 재해석이 창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객관적 풍경을 바라 본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해석 과정을 통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작업과정에서 현실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감상자에게 작가의 사생과 삶의 이야기, 내면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상자에게 작가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내면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내면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거친 후 저자의 감정은 조형언어를 활용하여 내면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저자의 작품을 통해 과거의 객관적 흔적들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흔적의 재해석이 어떻게 형상화 되어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그 후 작품에 부여된 새로운 가치에 따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성에 대한 의미를 고찰

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상의 사소한 흔적들을 소중하고 의미  
미한 가치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을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흔적과 시간 .....	3
1) 심미적 현상 .....	3
2) 지속으로의 시간 .....	6
2. 작품 설명 .....	9
1) 내적 시선에 의한 풍경 .....	9
2) 찰나의 시선과 기억 .....	19
III. 결론 .....	35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버스정류장03-180, 장지에 채색, 130x162cm, 2014 .....	10
【작품 2】 임정로55-1, 장지에 채색, 60x73cm, 2014 .....	11
【작품 3】 서계동220-5, 장지에 채색, 112x145cm, 2014 .....	14
【작품 4】 두 개의 전봇대287, 장지에 채색, 91x73cm, 2014 .....	15
【작품 5】 벽-설이, 장지에 혼합재료, 73x91cm, 2017 .....	17
【작품 6】 벽, 장지에 혼합재료, 74x136cm, 2017 .....	20
【작품 7】 벽-창1, 장지에 혼합재료, 45x53cm, 2017 .....	22
【작품 8】 벽-창2, 장지에 혼합재료, 45x53cm, 2017 .....	22
【작품 9】 창-1,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2017 .....	24
【작품 10】 창-2,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2017 .....	25
【작품 11】 남산, 캔버스에 혼합재료, 27x35cm, 2017 .....	27
【작품 12】 이촌동, 캔버스에 혼합재료, 27x35cm, 2017 .....	27
【작품 13】 밤,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7 .....	29
【작품 14】 공원,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7 .....	31
【작품 15】 세차장,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017 .....	33

## I. 서론

일상 속에서 시간이란 끊임없이 지나가고 생성되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은 잊혀지며 일부는 기억현상에 의해 흔적으로 되돌아보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새로운 환경과 사건들이 등장 하면서 과거의 흔적들은 잊혀져간다. 이러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현대인들에게는 흘러가고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자리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창작과정의 중요한 작품구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한 흔적을 통해 지난 시간 속에서 경험한 감상과 기억들을 현재의 가치인식을 통한 내면화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저자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흔적에서 비롯된 요소들을 상징화 하여 또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시도하고자 한다. 상상은 작품을 통해 압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새로운 해석과 가치부여의 의미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자의 작품구성에 있어 과거 흔적들로부터 연계된 상상력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심미적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사라지는 대상으로부터 미학적인 다양성을 고민하며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무심코 지나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면화 되는 새로운 가치인식과 평범한 일상의 소재들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는 작업과정을 통한 내면화와 자아성찰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회화적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어떠한 표현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1)장에서는 심미적 현상과 지속으로의 시간으로 나누어 작품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설명한다. II-2)에서는 본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실증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내적 시선에 의한 풍경은 벽면의 광고지가 뜯겨진 자국과 테이프 흔적들을 통한 상상이 어떤 다양한 의미와 내재적 가치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찰나의 시선과 기억은 일상에서 순간의 기억과 현상들이 흔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배경과 변화된 표현방법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지난 흔적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또 다른 이미지와 형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흔적과 시간

#### 1) 심미적 현상

흔적이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상에서 누군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버려진 대상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진 현상이 각각의 다양한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상에서 반복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흔적은 개인을 통해 또는,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작고 사소한 사건이나 상황들이 지난 후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 생겨나는 물리적 현상의 흔적과 자연적 시간의 흐름으로 생겨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흔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흔적은 사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현상, 사건, 기록 등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생겨나 현재의 존재로 보게 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모두 내포하는 시간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의 시간관계를 모두 연결시킬 수 있는 흔적의 의미는 ‘심미적 인식’<sup>1)</sup>을 통한 관찰 과정을 이끌어 낸다. 심미적 인식은 형상기억(形象記憶)<sup>2)</sup>에 의한 관찰방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동양화는 형상기억의 관찰방법을 강조한다. 이는 대상의 복잡함과 우연히 발생하는 잡다한 사항에 국한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

1)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한 인식. 심미적 인식은 존재와 대상에 대한 미적인 깨달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존재와 대상에 대한 예술적 가치의 인식을 의미한다. (다음백과, 어학사전)

2) 경험하였거나 배운 것을 머릿속에 새겨 두었다가 시각적, 청각적 표상을 토대로 되살려 내는 심리 과정. (표준 국어대사전, 국립 국어원)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억 속의 형상은 대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들로, 이는 화가의 머릿속에서 종합되고 개괄되어 복잡하고 미세한 부분들이 제거된 상태이다. 형상기억에 의한 관찰방법은 대상을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작가의 주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sup>3)</sup>

대상을 주관화 시킨다는 것은 상상력을 통한 창작 과정의 기반이 되어 자유로운 표현을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상력은 미적 가치를 표현해내고자 하는 주관적 심미적 관점으로 연결되는 창작 활동의 감각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술에서는 주제가 내용으로 구체화되면 그 주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변형을 가져온다. 작품에서 현실의 사물과 똑같은 형태나 색조를 요구한다는 것은 박물관표본도나 상황보고서라면 몰라도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에서는 문제가 다르다. 작가는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배열한다. 기록문학, 초상화, 음악연주 등 재현을 조건으로 하는 재현예술의 경우라도 그것은 기존물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를 가진 하나의 구성적 재현이다.<sup>4)</sup> 이것은 객관화된 대상의 존재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주관화된 세계로 연결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드머(Johann Jakob Bodmer, 1698.07.19-1783.01.02)는 상상력은 일상적인 개념, 관습, 습관들과 상충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상상력은 자동화된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 즉 ‘낮설게 하기’인 것이다. 낮익은 것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감동을 줄 수 없다. 한 시대에는 상상적인 것이 다른 시대에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적인 개념이다.<sup>5)</sup> 이와 같이 예술의 창작과정에서 상상

---

3) 진조복, 김상철 옮김,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9, p.29

4)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p.41

5)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21세기 북스, 2011, p.52

력이 예술적 가치로서의 미적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새로운 가치의 의미로 재해석 하는 것이다.

브라이팅거(Johann Jakob Breitinger, 1841.02.25-1919.12.03)<sup>6)</sup>는 “창작이란 환상 속에서 스스로 새운 개념들과 생각들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창작과정에서 상상은 형식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가능하게 해주는 내면화된 정신적 감각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원시인들도 바위의 형태를 어떤 동물의 형태로 연상하고, 그 암시를 발전시켜 그들이 동물에 대해 갖고 있던 마음의 이미지를 더욱 접근시켜 회화적인 표현으로 이끌어갔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나타내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사실을 상징화함으로써 현실감이 더욱 높아진다고 느낄 때 마음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원숙한 형태를 나타낸다.<sup>7)</sup> 이는 과거 예술의 회화적 표현에도 나타내하고자 하는 표현의 대상을 주관적인 심미관(審美觀)을 통해 시각적 형상으로 상징화 시켜 연결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6) 브라이팅거(Johann Jakob Breitinger, 1841.02.25-1919.12.03): 18세기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문학비평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시에서 상상력과 경이로운 것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했으며, 독일 대중이 호머의 열성적인 독자가 되도록 자극했고 존 로크, 샤프츠베리 경, 알렉산더 포프의 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다음백과, 어학사전)

7)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p.37

## 2)지속으로의 시간

시간을 지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의 접근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내면의 감각과 지각 기능을 통해 ‘기억’이라는 회상의 흔적으로 남겨진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03.31-1650.02.11)가 말한 무한창조의 세계는 보편적인 지속과 생성을 지성이 이해하는 공간적 관점에서 파악한 물질관이 다. 「창조적 진화」에서는 이런 공간적 물질관이 지성과 물질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의 물질은 언제나 일정한 시간을 접하면서 지속하고 있다. 시간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물질의 시간이든, 생명의 시간이든, 시간은 자신의 뒤에 족적을 남긴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완전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sup>8)</sup> 이와 같이 객관적 시간은 내면화된 시간으로서 ‘지속’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창작과정을 통해 무한한 세계로 자유로운 감각 활동을 이루어 낸다.

불교에서는 ‘찰나’를 단지 ‘한 순간’으로만 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1찰나마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생겨나면서 무한의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컵이 하나 놓여있다고 치자. 컵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이어져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찰나생멸(刹那生滅), 찰나 속에 영원이 있고 영원 속에 찰나가 있다.<sup>9)</sup> 이를 통해 동양에서는 주관적 기억과 시간을 정신적 영역으로 내면화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기억되어 지는 상대적 시간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일상이라는 보편적 시간 안에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시간은 감정과 사고와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흐르고 있는 사회적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측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물리적

8)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212

9) 이경민 기자, 「지구의 역사도 인생도 찰나의 연속」, [불교신문3191호/2016년4월6일자]

인 시간'인 크로노스(Chronos)<sup>10)</sup>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미학적 접근으로의 시간성에 속하는 '지속으로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도 모두 포함한 '상대적 시간성'인 카이로스(Kairos)<sup>11)</sup>이다. 상대적 시간은 시간을 미적 시간으로서 '시간성'이라는 무형의 존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각 형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친다. 그리하여 시간을 압축하기도 하며 연장하기도 한다. 즉, 너무 긴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보기도 하며, 너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좀 더 길게 보기도 한다.<sup>12)</sup> 이는 상대적 시간성이 새로운 형상과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의미로 자유롭게 해석되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다양한 상상력으로 시간을 다룬 사람들은 특히 예술가들이다. 어떤 예술가들은 시간의 흐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인간과 시간이 갖는 애처로움을 그렸다. 또 어떤 예술가들은 시간 자체를 그려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예술가들은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며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시간은 예술가들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주제이다.<sup>13)</sup> 이와 같이 예술가들은 시간을 내면화 시켜 새로운 가치 인식을 통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은 상대적 시간의 개념을 통해 객관적 과거현상들을 주관화하면서 작품을 통해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을 표현한다. 이 시간은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포착되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을 나타낸다. 게으른 사람에게 1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1분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관리할 수 없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

10) 그리스어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크로노스(Chronos)는 절대적 시간성인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11) 카이로스(Kairos)는 미적인 인간인 '상대적 시간성'을 의미하는 보다 다양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

12)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21세기 북스, 2011, p.186

13) 상계서, p.194

얼마든지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sup>14)</sup> 이는 작품을 통해 카이로스의 상대적 시간성으로부터 우리의 내면화된 기억으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다.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0.18-1941.01.04)<sup>15)</sup>의 시간성의 개념에서 실제의 흐름은 끝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지속이고 모든 것이 보존된다는 의미에서는 기억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주적 지속의 일부가 신체라는 이미지에 포착된 것을 개인적 정신 또는 기억이라고 보면 된다. 신체는 이미지들의 세계에 속해 있고 거기서는 매순간 순수지각이 생겨난다. 순수 지각은 아무리 많이 나열되어도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이 역할은 바로 기억의 몫이다. 즉, 순수지각에 기억이 결합하여 현실적 지각이 만들어 진다.<sup>16)</sup> 이는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객관적 대상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작업과정이 순수지각에서 내면화된 주관적 기억으로 결합되어 지는 과정이며, 이러한 각자의 내적기억을 통해서 시간의 지속을 표현한다.

---

14)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21세기 북스, 2011, p.165,

15)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0.18-1941.01.04): 유대계의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며 '생의 철학' 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의 철학을 창조적 진화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체험을 통한 경험이나 느낌으로만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현재라는 의식 속에는 과거나 미래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변하는 현재의 시간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6)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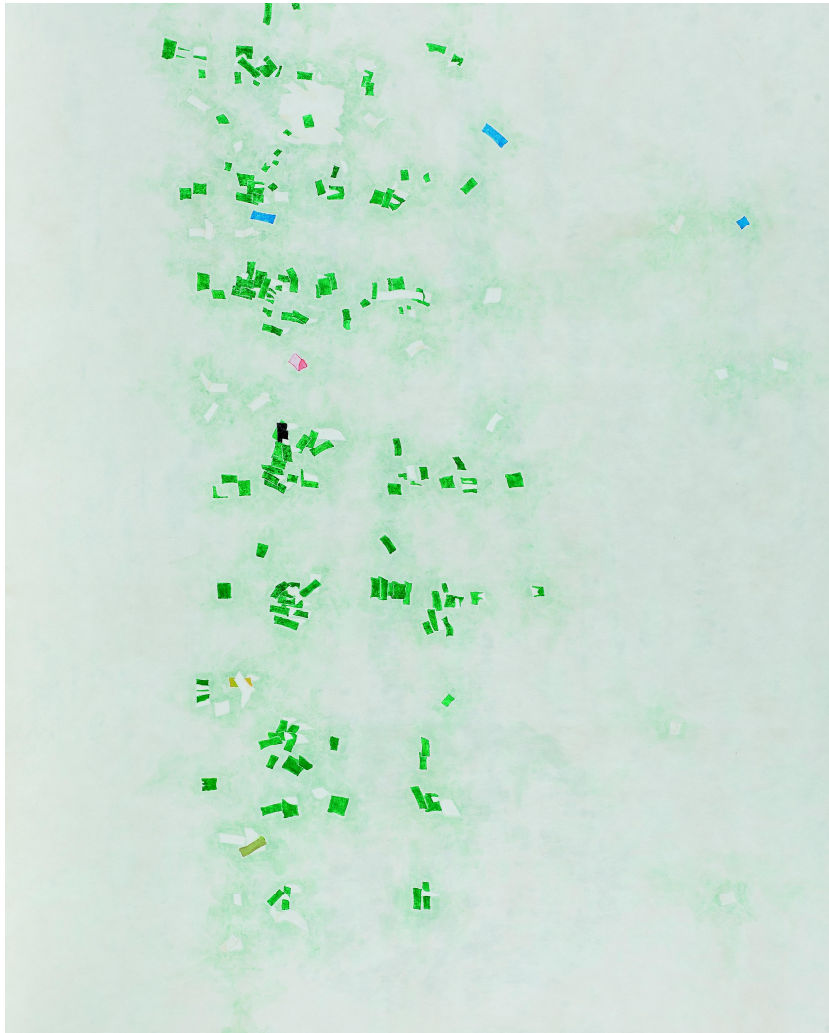
## 2. 작품 설명

### 1) 내적 시선에 의한 풍경

일상의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익숙한 풍경이나 사물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시간성의 가치로 느껴질 때가 있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형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다. 이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또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사소한 현상의 흔적에 관한 것이다.

흔적에서 비롯되는 영감은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시선과 감정을 느끼게 하며, 상상력이라는 지각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흔적의 형상은 사진이나 영상처럼 과거의 시간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이미지가 아닌 대부분 순간의 것, 기억되지 못하는 것, 뚜렷한 형상이 없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 의미도 하고 있지 않은 모호한 여러 형상으로 나타난다.

벽에 붙은 찢겨진 전단지, 청 테이프, 테이프 사이로 위태롭게 붙어 있는 종이 등이 있다.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벽은 전단지가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수많은 테이프 조각을 생산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한 풍경이다. 그곳엔 선거 포스터, 홍보물, 길 잃은 강아지를 찾기 위한 각각의 다양한 목적들로 수많은 전단지들이 등장하고 사라진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남겨진 테이프 조각은 과거와 현실의 시간의 고리 안에서 모호한 경계를 만들어 가고, 테이프의 흔적들은 반복적으로 쌓여 시간의 형상으로 상징화 하여 표현한다.



【작품 1】 버스정류장03-180, 장지에 채색, 130x162cm, 2014



【작품 2】 임정로55-1, 장지에 채색, 60x73cm, 2014

【작품1】은 벽면에 붙은 청테이프를 통해 화면 안에서 하나의 오브제 형식으로서 시간성의 가치, 존재 가치, 역사적 시간이라는 상대적 시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테이프 흔적을 통해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미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벽면의 전단지가 붙었다 떼어지고 그 위에 다시 붙여지는 반복되는 현상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청 테이프 조각들이 생겨난다.

테이프는 시간이 축적된 하나의 형상되는 것이며, 이 흔적들은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질서도 없이 흩어진 모습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서로 다른 목적이 있던 각각의 테이프, 전단지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무의미한 존재의 흔적들로 남겨진 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 테이프들 각각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와 기억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 시켜주는 시간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된다. 이러한 청테이프를 통한 흔적의 재해석과정은 일상에서 사라지는 작고 사소한 존재로부터 소중한 가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작품2】도 이어지는 청테이프 작품으로 벽면의 다양한 흔적이 화면 안에서 흩어진 종이조각, 혹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후에 알 수 없는 과편의 조각들로 형상화 시켜 구성한 작품이다. 찢겨진 전단지 일부의 종이를 표현한 것은 다양한 형상과 색을 화면에 더 많이 등장 시키며, 구도적인 변화와 새로운 이미지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두 작품은 임정로 55-1는 제목을 통해 장소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화면 안에는 장소, 주변의 배경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청 테이프, 찢겨진 전단지 종이만 나타나고 있다. 즉, 재현의 형식에서 벗어나 주관적 감상인 심미적 표현으로서 의도적으로 배경을 배제, 생략하여 단순하고도 지극히 평면적인 화면을 표현하고 있다.

재료적 표현 방법으로는 동양화의 전통 채색 방법인 분채를 사용해 색을 서서히 쌓아 올린다. 시간의 흐름 안에서 흔적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축적되듯

이, 색이 서서히 쌓여지는 담채(談彩)의 방법을 이용한 채색으로 한지(종이) 위에 얇은 색으로 칠하며 서서히 색이 짙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채색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파편조각이  
흩어지듯 뿌러지고 부서지듯 깨진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엔 내제된 시간성을 느낄 수 있고,  
존재하고 있음이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작업노트 중에서 (2014. 9월)-



【작품 3】 서계동220-5, 장지에 채색, 112x145cm, 2014



【작품 4】 두 개의 전봇대287, 장지에 채색, 91x73cm, 2014

【작품3】, 【작품4】는 벽과 전봇대에 붙은 청테이프와 주변의 여러 흔적들을 표현한 것이다. 익숙한 풍경 속에 청테이프 흔적들이 쌓여 낯선 풍경으로 변화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두 작품은 장소의 배경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 표현보다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풍경 속에서 테이프의 형상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다. 테이프 작업들은 배경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모두 배제하여 흔적의 형상만을 구도적으로 배치해 표현하였다. 이것은 동양화의 장식풍의 표현방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동양회화에서의 장식풍이란 작가가 예술적인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식도안의 수법을 차용하여 현실적인 대상을 새롭게 배치하거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장식의 수법은 현실에 기초하기는 하나 현실 속의 형태와 색채의 진실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용의 필요, 혹은 심미적인 법칙에 따라 조형 중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생략하고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장식의 수법은 현실에 대한 취사선택과 처리에 있어서 더욱 과장되고 변형되기 마련이며 정형화, 규율화 되어 강한 리듬감을 지니게 된다.<sup>17)</sup> 이를 통해 흔적의 이미지가 또 다른 다양한 이미지로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의 상상을 유도하게 되는 표현이다.

---

17) 진조복, 김상철 옮김,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9, p.187



【작품 5】 벽-설이, 장지에 혼합재료, 73x91cm, 2017

【작품5】은 벽에 붙은 전단지는 사라지고 그 전단지의 희미한 형상과 전단지를 붙였던 청테이프 흔적이 남아있는 풍경을 그린 것이다. 이 벽에 붙어있던 전단지는 ‘설이를 찾습니다’라는 강아지를 잃은 주인의 이야기이다. 매일 오고가던 풍경 속에 존재했던 설이는 어느 날 사라지고 없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며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벽을 표현한 것이다. 흔적들은 반복적으로 쌓이고 남겨지며 모호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

이 작품의 표현방법으로는 재료적 기법변화를 시도한 작업으로 젤스톤을 사용하여 종이(장지)에 질감과 두께감을 만든 후, 그 위에 벽면의 흔적들을 표현하였다. 초기 작업에서 서서히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채색방법과는 다르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다색과 선을 쌓고 다시 지우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붓질의 흔적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남겨지는데, 이것은 화면의 생동감을 만들어 내고자 다양한 표현의 기법을 시도 하였다.

## 2) 찰나의 시선과 기억

찰나의 시선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형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순간’이라는 찰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 찰나의 순간은 정신을 집중하고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내면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다. 당나라 때의 장언원(張彦遠)<sup>18)</sup>은 “그림은 응당 정신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표현된다면 모양의 닮음은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 과정은 저자의 작품에서도 흔적 이미지가 찰나의 시선으로 남겨지는 기억현상을 통한 주관적 감상의 표현인 것이다.

작업은 창, 벽, 그림자, 거울 등이 ‘찰나의 시선’을 통해 일상에서 마주한 순간의 기억,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초기 테이프 작업은 축적된 기록, 시간, 사건을 간직 하고 있는 내재된 시간의 흔적이고, 찰나의 시선은 창 과 벽, 빛, 그림자, 거울을 통해 우연히 마주친 낯선 순간의 현상을 내면의 기억으로 지속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

18) 장언원(張彦遠, 815년 ~ 879년)은 중국 당나라 때의 미술사가이다. 자는 애빈(愛賓). 삼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다. 중국 최고(最古)의 회화사(繪畫史)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의 저자로 유명하다. 또한 서론(書論)으로 저명한 《법서요록(法書要錄)》을 편찬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작품 6】 벽, 장지에 혼합재료, 74x136cm, 2017

【작품 6】은 내제된 기억과 찰나의 시선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다. 건물 뒤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앞선 청 테이프작업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다양한 흔적을 담아내고 있는 벽을 통해 다양한 흔적의 시선으로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 작품은 화면에서 오래된 낡은 벽의 창문, 구멍, 틈은 내제된 기억의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태롭게 매달린 거울과 시계, 깨진 유리, 검은 비닐은 찰나의 순간 속에 낯선 풍경을 만들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가 담겨진 시간, 기억, 현상을 표현하여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찾기 위한 작업이다. 초기 작업에서는 전통 채색 방법 사용 했지만, 후에 이어지는 작업은 먹과, 분채, 아크릴, 젤스톤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화면의 두께감과 거친 질감을 만들어 내제된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벽-창1, 장지에 혼합재료, 45x53cm, 2017



【작품 8】 벽-창2, 장지에 혼합재료, 45x53cm, 2017

【작품 7】은 창이 있던 자리를 매우고 벽돌이 다시 덧붙여진 벽의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벽의 흔적은 창이 존재해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벽을 통해 창과 벽 사이의 내면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벽돌은 하나의 창을 만들어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오고 가는 통로를 만들어 시간이 이동하는 상상이 발생하는 흔적의 현상이다.

【작품 8】에서도 벽과 창의 흔적을 통한 내면의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오래된 건물의 벽면을 통해 바라보는 창의 형상이 하나의 공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과 밖의 통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은 다양한 감각작용을 발생시키며 대상의 색과 화면의 구도를 단순화 시켜 표현 하였다. 화면의 구도와 선, 대상의 색과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형식과 규칙 갖고 있기 보다는 일부가 생략되고 지워지며 또 다른 추상적 형태로도 표현을 시도한 것이다.



【작품 9】 창-1,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2017



【작품 10】 창-2, 장지에 혼합재료, 162x130cm, 2017

【작품 9】 , 【작품 10】 에서는 창을 통해 순간의 형상, 현상을 표현한 것이며, 이 작업에서 찰나의 시선은 자연현상, 빛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 9】 는 창이라는 이미지가 화면의 전면에 배치되어 하나의 선의 조형적 역할로 표현되었다. 창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을, 그리고 밖에서 안을 보게 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지는 소재로 다양한 시선으로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은 수많은 순간의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면의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흔적은 머무르는 현상이 아닌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들로 시·공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작품에서 창은 하나의 소통의 의미로도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다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작품 10】 에서도 창의 형상이 화면을 통해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창을 통한 시선으로 나타난 빛과 그림자의 흔적을 표현한 작품이다.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현상을 통해 순간의 흔적을 기록하여 표현 하였다.

표현기법으로는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붓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기며 또 다른 이미지로도 연결을 시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화면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1】 남산, 캔버스에 혼합재료, 27x35cm, 2017



【작품 12】 이춘동, 캔버스에 혼합재료, 27x35cm, 2017

【작품 11】은 밤과 빛을 【작품 12】는 낮과 빛을 표현한 작품으로 빛을 통해 나타나는 그림자의 흔적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서 그림자의 흔적이 규칙적인 울동성을 갖고 있는 형상을 바라보며 주관적 시선으로 그림자의 흔적을 표현하게 되었다. 작업은 이러한 풍경으로부터 기이함과 낯설음을 느끼며 순간의 기억을 표현한다.

두 작업은 다른 장소와 낮과 밤이라는 다른 시간 안에서의 나타난 현상이지만, 빛과 그림자의 흔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작품이다.



【작품 13】 밤,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7

【작품 13】 흔적은 일상에서 변칙적으로 발생하는 그림자의 형상을 기록한 것이다. 밤, 벽, 창, 그림자의 시선을 통한 내면적 감상을 통해 작업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표현된 벽은 내면의 시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은 찰나의 순간에 또 다른 기억과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낮은 풍경이 나타나 내면의 감정들은 기억의 흔적으로 벽을 통해 남겨진다.

이 작품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한 작업이다. 밤의 흔적들을 표현하기 위해 색과 붓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질감적인 표현방법을 연구하였다.



【작품 14】 공원, 장지에 혼합재료, 97x130cm, 2017

【작품 14】 도 마찬가지로 순간의 존재로 나타나는 그림자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공원을 걷다 우연히 그림자의 형상을 따라 이끌려가고 있음을 느끼며 표현한 작업이다. 그림자는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고 있었고 화면에서 구도는 평면적으로 배치해 표현하고 있으며, 채색의 기법적으로는 붓질의 흔적을 남겨둔 채로 그리기를 반복해 깊이감이 있는 공간이 느껴지도록 화면을 만들려고 했다. 작품에서 번지고 지워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흔적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15】 세차장, 장지에 혼합재료, 112x145cm, 2017

【작품 15】는 창을 통해 본 거품의 흔적을 표현한 것이다. 거품은 어떠한 알 수 없는 파편들이 펼쳐진 형상처럼 창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은 순간의 시간 속에 시선을 멈추게 만들었고, 이 창을 통해 내면화된 시간과 기억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거품은 창을 통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는 그 순간, 서서히 사라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작품에 표현된 창은 여러 흔적들이 스치고 남겨지며 시간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상은 내면화된 기억을 통해 거품의 흔적들이 특별한 존재의 가치로 상징화 될 수 있다. 거품이라는 모호한 흔적의 형상은 아무런 의미도 하지 않는 추상의 형태들로 나타난다. 이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여 또 다른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 과정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다.

거품의 흔적을 재현하는 것은 내제된 시간과 기억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흐름 안에서 그 전체가 기억으로 보존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결 론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 반복적으로 사라져 가는 일상의 흔적과 시간성의 관계를 연구하고 표현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해 논하였다.

본 저자는 연구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의미화 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흔적에서 비롯되는 현상의 재해석을 통해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내면화된 새로운 가치로 표현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은 일상이라는 반복되는 시간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속도, 기록, 기억, 사건, 현상 등을 관찰하고 내면의 주관적 시선으로의 ‘흔적’과 ‘시간성’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자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삶을 바라보고 일상을 관찰하는 창작의 행위가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작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속에서 버려지고 사라지는 것들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모습이지만, 재현의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가치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작업을 통한 이러한 연구 과정은 버려지고 소외되는 것을 다시 바라보고 지각하게 되었다. 이는 버려지고 소외되는 대상이 새로운 가치로 해석되어 창작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상자의 가치인식에 의해 그들의 감각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유되면서 공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조형 방법과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의미와 해석이 가능한 조형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 라는 자아의 존재 즉, 내면적, 정신적 가치

에 대하여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내면의 시간, 내제된 기억의 흔적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앞으로의 작업을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나아가 작품 속에 표현된 흔적을 통해 사회 안에서 버려지고, 사라지는 사소한 것들이 가치 있는 의미로도 재해석 되어 질 수 있었다. 이는 작품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대상을 가치화 하여 관계와 소통을 촉진하고, 내면화 되는 과정을 통해 성숙되는 자아의 발견으로 작품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고우즈 하루시게, 『그리스·로마 신화 사전』, 이와나미 서점, 1960
- 손철주, 이주은, 『다, 그림이다』, 이봄, 2011
- 임정택, 『상상, 한계를 거부하는 발칙한 도전』, 21세기 북스, 2011
- 진조복, 김상철 옮김,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9
- 조요한, 『예술 철학, 미술문화』, 2003
- 존 웰우드,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 범양사, 1987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 학위논문

- 서윤희, 『기억의 다층적 시간과 공간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 이상길, 『기억과 창조 : 베그르손의 “물질과 기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 신문기사

- 이경민 기자, 『지구의 역사도 인생도 찰나의 연속』, [불교신문3191호/2016년 4월6일자]

# ABSTRACT

## A Study on Pictorial Expression about Traces of Everyday Life

- With the Main Focus on the Author's Own Work -

HWANG, Joo 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works of art expressed subjectively the things that the phenomena related with the traces of daily life, focusing on the works which wa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for applying master degree held in 2017.

In modern society, the new awareness and the acceptance of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are demanded. In addition, a tendency to prioritize newer, more effective and more practical things is becoming common. These phenomena are affecting to the work, and a work of art is completed with consideration for these social phenomena.

The author of this study reconsidered the value of time inherent in the traces of the past such as social phenomena, events, and records repeated in a daily life. In other words, reinterpretation of the traces of

the past is the starting point of a creation. In this way, this author also does the creative activities through a subjective interpretation process of objective reality and phenomena. During work, it makes free imagination is possibl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of reality. Based on this imagination, the artist can complete the work and communicate the artist's thoughts, life stories, and emotions to the viewer through the completed work. Therefore, in order to emotionally communicate with the viewer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internalization process which is observing and understanding the inside of the self. After this internalization process, the artist's emotions are expressed in various visual images with internal values utilizing the formative language.

In this study, the author's work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were studied and the objective traces of the past were subjectively reinterpreted to give new value. Through this process, I examined how the reinterpreted the traces of a daily life are in the author's works. After that,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as reviewed and summarized according to the newly given values. Through this whole process, the ways to remember insignificant traces of the daily life and to preserve them with meaningful values were investigated. Furthermore,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is summarized in this paper.